



1 손병석 사장, 양승조 충남지사, 오세현 아산시장이 한국철도 전산센터 투자협약을 체결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손병석 사장(가운데)이 철도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3 한국철도 임직원이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른 긴급 영상 회의를 하고 있다.

## 한국철도·충남도·아산시 ‘철도전산센터’ 신축 위해 손잡아

한국철도가 지난 8월 26일 충청남도청에서 충청남도, 아산시와 함께 ‘한국철도 전산센터(이하 철도전산센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한국판 뉴딜 중점과제로 선정된 첨단 전산센터 건립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철도전산센터는 승차권 발매, 열차 운행 등 철도 관련 전산 정보를 관리하는 시설이다. IT 이용량 증가에 따라 서버 증설 등 인프라 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신축되는 철도전산센터는 천안아산역 인근에 374억여원을 투자해 2023년까지 완공한다. 충청남도와 아산시는 건축 인허가와 토지교환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신축 철도전산센터는 ▲ 서버 용량 한계 해소 ▲ 정보보안 및 시설의 안전성 강화 ▲ 철도 데이터 통합관리 등 4차산업혁명에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게 되며, 철도서비스 디지털화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서울 철도전산센터는 재해복구센터로 전환돼 비상시 업무를 지원한다. 지진, 태풍 등 재해로 신축 전산센터가 마비될 경우 주요 기능을 백업할 수 있도록 2중 보완 시스템을 갖춘다.

한국철도는 아울러 철도전산센터를 기반으로 철도 데이터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IT 사업 투자확대, 신규 일자리 창출 등 ‘한국판뉴딜’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승차권 예매, 교통·관광 안내, 철도 물류, 시설 인프라, IoT(사물인터넷) 센서 등 철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빅

데이터 기반의 한국철도형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손병석 한국철도 사장은 “양질의 IT 정보를 함께 활용해 한국판 뉴딜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충청남도 도지사님과 아산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철도, 추석 승차권 100% 비대면 예매

한국철도(코레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추석 명절 승차권을 9월 8일(경부선·경전선)부터 9일(호남선·전라선·강릉선)까지 이틀동안 100% 온라인으로만 사전 판매했다. 또 창가 좌석만 발매함에 따라 전체 열차 좌석의 절반인 약 100만석만 예매가 가능했다.

손병석 사장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00% 온라인 예매를 결정했다”면서 “IT 기기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예매를 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